

## 표준진단표를 활용한 전북지역 딸기 스마트팜 실태 분석

장지혜\*, 김홍기\*, 양진호\*, 노재종\*, 이정임\*, 최혜진\*, 고연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mail:jhjang24@korea.kr

###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Strawberry Smart Farm in Jeollabuk-Do Area Using Standard Diagnostic Table

Ji-Hye Jang\*, Hong-Ki Kim\*, Jin-Ho Yang\*, Jae-Jong Noh\*, Jeong-Lim Lee\*,  
Hye-Jin Choi\*, Yeon-Sil Ko\*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 요 약

영농 편이성과 생산성 향상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ICT 융복합기술의 농업분야 도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유통·경영 등 농업 전 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통해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을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한 전북지역 스마트팜 농가는 121호이며, 작목에 따른 스마트팜 도입율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화훼 농가순이다.

농업경영 표준진단표는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배 및 경영기술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농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지표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딸기 스마트팜 농가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실태 및 활용 수준 분석을 통해 스마트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딸기 스마트팜의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수경 딸기 농업경영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딸기 스마트팜 경영 표준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김제, 남원, 부안이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 설치된 딸기 스마트팜 농가 10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딸기 스마트팜의 종합평가진단을 위해 농가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시설 및 자동화, 환경관리, 작물관리 및 경영관리 4분야 24세부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평가진단의 수준은 1~5단계로 단계별로 국내 평균 미만, 국내 평균, 국내 중상위, 국내 상위, 최고 선진 수준으로 분류된다. 분석은 딸기 스마트팜 경영 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스마트팜 상위 20% 평균과 하위 20% 평균, 전체평균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평가 상위농가는 85.8/100점으로 국내 상위수준에 해당되었고, 하위농가는 69.6/100점으로 중상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농가는 하위농가 대비 환경관리, 시설 및 자동화, 경영관리 순으로 우수했으며, 작물관리는 상·하위 농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상위농가는 환경관리 26.2/30점, 시설 및 자동화 24/25점, 경영관리 12.6/20점, 작물관리 23/25점이었고, 하위농가는 환경관리 20/30점, 시설 및 자동화 18.5/25점, 경영관리 8.6/20점, 작물관리 22.5/25점으로 조사됐다.

세부평가 진단 결과 하위농가는 상위농가보다 시설 및 자동화 분야에서 농작업생력화와 양액공급시스템 항목의 점수가 낮았다. 환경관리 진단 결과 하위농가는 배지와 배양액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관리분야는 협업경영과 농업정보활용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